

제 147 호

연중 제 25주일

1975. 9. 21.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감 론□



“천주교 회장(會長)”

박진량 신부

우리 천주교 안에는 회장들이 많이 있다. 사도회장, 공소회장, 구역회장, 어머니회장, 청년회장 등등... 떠나나 많다. 「회장」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꽤 높은 지위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교회안에서도 회장이라면 모름지기 그 단체의 대표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렇게 높은 지위나 재량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첫째가 맨끝이 된다」(마태 20장 16절)는 원리 때문일까? 아무튼, 회장은 그 단체의 대표이며, 지도자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안에 지도자는 「섬기는 자」이다.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거나 권력으로 내리 누르는 자가 결코 아니며, 하느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섬겨야 한다. (마태 20장 25~28절 참조)

그런데 요즘 교회안에는 지도자가 없다(?)고들 말한다. 이 말은 교회 내에 있는 교우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리라.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교회 내의 각종 단체를 지도할 만한 인물 즉 회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확실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회장이 부족하다. 이뿐만이 회장이지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교우들을 섬기는 회장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 교구는 이번 회계년도말을 맞이하여 각 본당의 사도회장과 구역공소 회장을 개선하거나 유임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회장을 「개선하느냐」 「유임시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섬기는 자」를 모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섬기는자,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백성을 섬겨야 할 천주교 회장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천주교 회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그는 무엇 보다도 먼저 투철한 교회의식 즉 신앙심과 영성을 지니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국가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해야 하고 정당의 지도자는 당성이 강해야 하듯이, 교회 지도자는 모름지기 투철한 교회의식 즉 신앙심과 영성을 지니어야만 한다.

그러나 비뚤어진 교회의식,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의식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 바로 오늘 이 한국교회의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여 공의회가 제시한 사목헌장의 정신을 실제 생활로 옮길 수 있는 올바른 교회의식을 지니고 있는 자가 「천주교 회장」이 되어야 한다.

그 나머지의 품성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마찬가지이다.

「주여, 저희 본당에 참다운 회장을 주소서!」
(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 기도서 P 439

(1) 개회식

□**입당송** 나는 백성의 구원이니, 어떠한 환난중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면/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영원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 주리라.

(2) 말씀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 55 : 6-9)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증계송** ◎ 당신께 비유는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찬양하고/당신 이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님은 위대하시고 크게 기뻐지 하옵시고/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 없나이다. ◎

□**제 2 독서** (필립보 1 : 20~24, 27 성서 P 449)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말씀 귀담아 듣게 하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0 : 1-16 성서 P 47)
내 선한 처사를 네 눈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신자들의 기도

1. 당신 교회에 언제나 일꾼을 보내 주신 성부여, 저희 교구는 지금 각 본당의 사도회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르게 투철한 교회의식을 가진자가/당신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일꾼들이 회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그들의 말과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이끌어 주소서. ◎주여

2. 기후와 계절을 섬리하시는 성부여, 지금 저희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는 병충해로 농사를 망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에 풍성한 결실이 따르도록 축복해 주소서. ◎

3. 모든 이를 알뜰히 사랑하시는 성부여, 이미 죽은 저희의 선명들의 명복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에게도 당신 외아들에게 주신/영광스런 부활의 은총을 담합 내려 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불헌** □**성찬식**

□**영성체송** 나는 착한 목자이니, 나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는도다.

순정이 산책



—
○정모담 제15호 발행—
—
북주 기도 많이 바칩시다.



이 바오로의 편지

이 누갈다의 남동생

이 글은 정해(丁亥, 1827년, 순조27년)에 순교한 이 누갈다의 남동생 이 경번이 어느 교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내 평생에 항상 치명지은을 입어야 이 무수한 죄를 보속하겠다 하더니 사월 이십일일 부지불각에 “김성집”이 경향 포교 심여인을 데리고 나를 잡아 포칭(捕廳)으로 간즉 그곳에서 묻는 말이

문: 상분을 그렸다하니 참 그러하냐?

내: 마을에 생각컨대 별새 일이 들어난고로

답: 그렇다.

대답하고 이튿날 포장(捕將)이 잡아들여 국문하되

문: 네가 천주교 한단말이 옳은 말이나?

답: 과연 그러하도소이다.

문: 누게 배웠느냐

답: 이왕 성교일로 치명한 「민의백」씨에게 어렸을때부터 약간 들은 후 또한 「조수옥」(조명수)과 자별(自別)히 친한고로 같이 공부하여 많이 배워 속에 가득히 찼나이다

문: 지금이라도 아니 하겠다 하면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답: 만만코 그렇게는 못하나이다.

문: 어제 한말이 참말이나?

답: 과연 참말이 옳소이다.

한즉 나를 하옥(下獄)하니라. 포장이 비국(備局) 당상(堂上)에게 가서 품(稟)하고 나를 「전주」 포졸에게 맡기매 날이 석양이 되어 「한강」을 건너 십리쯤 가서 속소를 정하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곤핍(困乏)하기만 하더니 익일(翌日)에 「김성집」과 다른 포교 여섯이 같이 호송하여 「전주」로 향하니라. 내가 아직 본성을 다 이기지 못한고로 눈물이 흐르더니 다시 생각하여 「예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행하셨으니 나도 부득불 따르리라 하고 한걸음씩 예수의 자취를 밟아 행하고자 하였으니 또 이 마음은 내 신력을 도우니 날마다 백리씩 걸어 이십팔일 저녁에 「전주」 포칭에 들어가 한참 쉰 후 영장(營將)의 앞에 나아가니 좌우에 여러 관졸이 햇불을 잡았는래 그 화광이 찬란하매 마치 「오리와」 동산에서 오 주 「예수」 잡히신때 같이 생각이 나더라. 그때에 다만 내 성명과 조상의 이름만 묻고 내보내어 더운 방에 두며 밥과 반찬을 갖추어 주나 먹지 못하고 몸 노곤하고 칼쓰고 수족을 질곡함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수오(愁憂)하여 한가지도 정한 생각은 없더라. 그 이튿날 법정에 들어가니 영장이 물으되

문: 네가 천주교 행하기로 꼭 정하였느냐?

답: 정하였나이다.

문: 천주는 누노?

답: 보친하 만민의 아버지요 홀로 천지 신인(神人) 만

물을 조정하신 왕이소이다.

문: 너 어찌 아느냐?

답: 한편은 우리 육신을 돌아보고 한편은 만물을 살펴 보매 어찌 조물주가 없다하오리까.

문: 너 보았느냐?

답: 어찌 구대여 본후에야 아오리까. 순상(巡相)께서는 이 관부(官府) 지은 장인(匠人)을 보셨나이까? 사람의 오관(五官)은 소리와 빛남과 맛봄과 냄새로 깨달아 알뿐이오 천륜(天倫)과 무형한 사정의 이치는 명으로 추론(推論)하여 분별하나이다.

감사 한참있다 하는말이

문: 너 배운것을 외우라.

답: 마땅히 준행할 바 십계며 피할 바 칠죄종(七罪種)이며 아침과 저녁에 천주께 바칠 경문을 배웠나이다.

문: 그는 이미 들은 것이어니와 너 고치고저 하는 마음이 없느냐.

답: 없나이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과 임금께 충성하지 못하는 신하는 다 불초(不肖)하고 역적이어늘 민도 사람이어늘 어찌 대주를 공경치 아니오리까.

문: 너 죽음을 무서워 하지 아니하느냐.

답: 어찌 무섭지 않으오리까.

문: 그러할양이면 어찌 성교를 배반치 아니하느냐?

답: 배반치 못할 연유는 아까 말씀하였아오니 민다려 다시는 묻지 마소소서. 이왕 죽은 사람이로소이다. 하니 나를 하옥하니라. 익일에 「전주」 본관(本官)과 「고산」(高山) 「곡성」(谷城) 동복(同福) 「정읍」(井邑) 네관원들이 합좌하여 하졸(下卒)을 물리치고 본관이 나를 가까이 하여 유순히 하는말이

문: 네가 양반이니 상한(常漢)등류와 다르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인데 어찌 악한 교행하기를 고집하느냐?

답: 장유(長幼)와 상중(上中)하와 용모 기질(氣質)은 말씀할 것이 아니옵고 다만 천륜의 '뉘뉘한 일은 영혼 사정이로소이다.

문: 천주교에 무슨 천륜이 있느냐.

동복원이 가로되

문: 너 그 도리를 낱알이 말하라.

하니 먼저 천주의 전능전지 전선하사 지존 무대 하신과 지공(至公) 지의(至義)하신 사단이며 영혼이 불사 불멸 합과 천당 지옥의 상벌이 분명함을 말하고 또 십계를 강론하였다.

□양지쪽□



사목현장 교육의 해를 지내면서

문 정 현 신부

1974년도 작년 한 해는 충격과 수난의 해였다. 때로는 공포에 질려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 하나 하나마다 신변의 위협이 따랐기 때문이요, 어떤 이들은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까지 두려워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관원들이 성당안에 까지 들어와 강론 내용을 적어가고 심지어는 녹음까지 해 갔었으니 말이다. 그뿐인가. 카메라 후폐쉬가 여기 저기 번쩍 번쩍 터졌으니 행여 열등이나 찍히지 않을까하고 겁을 집어먹었어야 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성직자들이 자주 연행 당했던 일이다.

왜 이런 공포속에서 살았어야 했고 수난을 겪었어야 했는지 생각해 본다. 세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자각을 하였다. 그것은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또 오늘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를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세계의 사목 현장이라 우리 전주교구만 하더라도 금년을 사목현장 교육의 해로 정한 바 있다. 또 각 본당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주지 시켰다. 이것은 이미 사목현장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의 제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과연 「구현」이란 낱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그저 사색이나 이론, 토론이나 명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까지도 내포되는 낱말이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교리와 교회에만 관심을 두었지 운명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태,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밖의 사람들과 유린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기력하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 즉 당신이 가르치신 것을 행하는 제자를 원하셨지 신자(信者)를 원하시지 않았다.

작년 한 해동안 우리는 민중의 음성을 들었다.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다. 이들을 대변하다가 실직되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다. 억울한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릴 길이 없어 헤매던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하느님의 음성이었음을 사목현장을 통하여 확신했다.

이 하느님의 음성에 외면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십자가의 길, 파스카의 신비를 재현 할 것이다. 이때 하느님의 영광은 이 땅에 드러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룩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요십이 (113) 그병오



장 동주 문하생

(그레고리오)

피아노 연주회

때 : 75. 9. 26(금) 8시

곳 : 전주 시민문화관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부원. 결핵협회 역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재료 각종한시

실크 솔입비지 파이텍스

대 등 지물 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② 5986

임 정 원(도민교)

※ 신간 안내 ※

양치는 소녀

이석현 저 400원

구상 문학선

구상 저 2,000원

성파오로 서원 전화 ②7398

❖드레스 미싱 대리점❖

삼영 미싱상회

<미싱일체>

◎ 태인상회 앞

전화 ② 2827

최 경 자 (테레사)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쎄느 의 상 실

최 로사리아 (춘 자)

전주시 중앙동, 뉴 명보제과 앞

전화 ② 6219

*사무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에게 *

가톨릭센타

사무실 대어

*가톨릭센타내 사무실을 필요로 하시는 분 환영

문의 요망 전화 ② 349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서학동 여·교우 (38세) 익산 농장 나환자촌 공소 건립을 위해서 2돈짜리 금반지 회사
2. 전주 해성 중·고 신자 교직원들 추석을 맞이하여 은퇴 신부님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위로 인사.
3. 전주 교구 가톨릭 중·고등 학생 회장단 회의 : 1975. 9월 28일 오전 10시.
각 지구 회장단들의 빠짐 없는 참석 바랍니다. 4지구 중·고 회장단 회합 : 9. 21 오후 3시 북자성당
4. 순정이 편집실에서 알립니다.
새 예산 책정에 의한 각 본당 순정이 구독의 정확한 부수를(각 공소의 주소와 부수) 9월 27일까지 순정이 편집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없는 본당에서도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2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김영진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매월 마지막(금) 10시 미사후 유아 보례 있음.
3. 방지거 삼회원은 27일 10시까지 도시락 지참하여 치명자산 모이시길.
4. 주일학교 아동 치명자 묘지 참배 : 9. 27. 오후 2시
5. 성당 마당 포장 공사에 협조하여 주신분 감사드림. 립 이상범, 엄희장 각 10,000원, 방벨라도 : 5,000원.

(주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일) 월 : 오전 6시 화~금 : 오후 7시. 토 : 오후 5시

2. 9월 24일(수) 미사 없음.
3. 영세식 : 9. 27<토> 오후 4시(대부모 함께 참석바람) 상담 : 9. 25<목> 오후 8시. 준비 : 26<금> 오후 8시
4. 축 신임 사도회장.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회장> 조성호 <부회장> 박흥기, 김화자
5. 학생회 : 다음주 치명자산 참배(오전 6시 본당 집합) □ 미사에 나오신 분. <남> 103명 <여> 354명 <계> 457명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성 안뜨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 다음주
3. 축 신임 사도회장 임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회장> 조해형 <부회장> 박성규, 박종용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용 : 10,000원. 최방애 : 3,000원. 이기환 : 3,000원. 주계 : 16,000원 누계 : 4,044,627원 ◎ 신축 성미 : 1말 2되 누계 : 230말.

(서학동)

전화 ③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준

1. 사도회 임원 <고문> 유종선, 이거영, 손숙옥, 박춘덕 <감사> 유동식, 한동섭. <선교> 한형수 <봉사> 이정빈 <전례> 김종태 <재정> 강남준
2. 재경 위원장 부위원장 회의 : 9. 24. 오후 8. 30분
3. 사도회 상임위원회 : 9. 26일. (상임 위원은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장, 각 위원장, 감사, 구역장)
4. 사도회 총회 : 28일 오후 2시
5. 신용조합 이사회 : 공식 미사후 월례회 : 다음주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임원 <총재> 박종근신부 <고문> 엄기섭, 유훈식, 최낙범, 송영기, 임옥순. <사무장> 박요곤 <선교> 남상용, <전례> 김은식, <봉사> 최부남, <재정> 임병순, <감사> 김용식, 김주철
2. 구역 대의원 선거 : 공식 미사후 <23일> 전당리 <24일> 미산리 <25> 동산촌 <26일> 내동리
3. 35사단 신자군인 추석 특별 위문미사 : 21일 오후 2시

(전동)

전화 ③ 3222

주임 신부 김철
보좌 신부 한윤도
사도 회장 양윤모

- * 76년도 사도회 임원 회장 : 양윤모 부회장 : 유석중, 권태욱 <선교> 김병호 <전례> 한상갑 <봉사> 박태부 <재정> 이종두
- * 사도회 신, 구 회원 1일 목상회 장소 : 상관 성당 때 : 9. 28일 주일
- * L.M 꼬미 싸움 : 오후 1시 30분
- * 어린이 미사 : 오후 5시 이 누갈다 묘소 참배
- * 중·고예비자 교리시간 : 토요일 5시 미사후.

(북자)

전화 ③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미사 시간 변경 : 9. 22부터.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창제안부수신태정	평일 미사 변경	5,145원	제 3 지구	주현동청인동	방지거 3회	37,290원
		은퇴 신부님 위안회 미납교부금을 완납함시다	17,805원			신용조합 월례회 사도회 총선거	41,460원
제 2 지구	대운울명중합	교부금 완납요망 미납교부금을 완납함시다	4,495원	제 4 지구	중덕부서학동전	성모회 월례회	66,173원
		사도회 총회	14,250원			애령회 간부 월례회	21,765원
		사도회 임원회	4,720원			대의원 선거	13,275원
제 3 지구	고금여	사도회 정기총회	35,715원	제 5 지구	남부순임장전	영세식	19,495원
		75년도 회장 피정 성우회 월례회 신자 전체 회의	22,660원			신용조합 이사회 L:M 꼬미싸움	14,900원
			12,740원				49,035원
			9,490원			신임 사도회장님께 축하드립니다	11,730원
			4,125원			사도회 정기총회	1,740원
						사도회 대의원 회의	2,231원
						성서 연구 모임	2,890원
						사도회 정기총회	2,620원
						본당, 공소 신자 남해안 여행	원